

여성행동

"바로 오늘, 당신과 함께
다르게 살기를 원한다."



제11대 중여학생회를 준비하는
장임다혜 · 최박명현과 함께 하는 사람들

5천 여학우는

5천 여학우는

여/성/행/동

여/성/행/동

우리에게 5천 여학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문제는 확장될 수는 있을지언정
대표될 수는 없다.
아무도 개인의 권리와 정치적 의사를
대표하거나 대신해 줄 수 없다.

또한 문제의식이란
위에서 아래로
던져지는 것이 아니다.
고민해야 할 것은
개개인의 존재조건의 차이 속에서
각자의 정치성을 발현하는 것이다.

지루한 세상에 대한 낯선 사선
열린 질서를 향한
여/성/행/동

바로 오늘, 당신과 함께
다르게 살기를 원한다.

지루한 세상에 대한 낯선 시선,

열린 질서를 향한

여 / 성 / 행 / 동

제11대 중여학생회 정후보
장임 다혜(법학3)

- 1996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입학
법사회학회 활동
'내일을 여는 집' 물빛마을 공부방 활동
- 1997. 법대 성연구 모임 '동크래지는 온쪽이' 대표
여성자치연합 활동
- 1998 여성주의 모임 '13번째' 활동
제10대 중여학생회 연대사업국장
학내 성폭력 문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 활동
제11대 중여학생회 정후보 출마

제11대 중여학생회 부후보
최박 명연(관호3)

- 1996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입학
간호대·의대 연합 진로동아리 '의정' 활동
93 맥양로 난장 '여성파 탁' 주체
- 1997. 여성자치연합 활동
제35대 간호대학생회 준비위원의 대표
- 1998 제35대 간호대학생회 교육국장
제11대 중여학생회 부후보 출마

"바로 오늘,
당신과 함께
다르게 살기를 원한다."

글 심는 순서



- 6 출마의 변
- 8 이/의/제/기
- 14 우리의 행동
- 22 여성주의적 자치질서:
학생사회의 여성주의적 재구성을 주장한다
- 28 oh no! 남녀공학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 32 자세히 보기1. 이제, 자치규약을 말한다!
- 36 oh no! 세상에! 총학생회장들이 성폭력으로 사퇴를 했다고?
- 38 자세히 보기2.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 42 oh no! 기억하십니까? 마초맨
- 44 변신시멘트 귀신 공연일지
- 48 함께 하는 사람들
- 13 쉬어가는 글 1.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2
- 31 쉬어가는 글 2. 엄마의 발



76년 이른 봄날, 난 보통 가정애 첫째로 태어났어. 팔만 둘인 집에서 맏이인 나에게 부모님은, 그분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룰 수 있는 무언가가 되길 원하셨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의 노력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래, 누구나 능력만 있으면..... 커가면서 난 눈부시게 성공하는 아주 적은 수의 여성들을 보았어. 정말 소수이지. 언제나 그녀들 앞에는 꼭 '여류'라는 딱지가 따르니까. 그녀들은 모두 비슷한 언어로 자신의 고생담과 이를 극복한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을 이야기하더군. 난 생각했지. 그래, 지금이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도 아니고, 능력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까야...

주체적이고 능력있는 '나'가 되리라! 난 독립하고 싶었고, 희망에 부풀어 대학에 들어왔지.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난 엄청난 걸 깨닫고 말았어. 그건 바로, 한국 최초의 남녀공학인 연세대학교에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야. '제군들...'로 시작하는 강의는 '고시만 붙으면 예쁜 여자들아 줄을 선다...'로 끝났어. 교수님들에게 강의의 대상은 남학생뿐이었지. 잠깐의 휴식시간 동안에 여자 화장실을 찾아다니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어. 그나마 찾아간 화장실도 길게 늘어선 줄 때문에 좌절할 경우도 많았지. 심지어 진보적인 공간이라는 학회나 동아리에서도 그 사정은 마찬가지였어. 그 안에서 여성은, 거칠게 말하자면, '낮에는 동지, 밤에는 여자'의 이중적인 역할을 해야 했어. 학년이 높아질수록 능력있고 멋있었던 여자선배들은 학교에서 주변인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 도대체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여성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공간은 어디에 있는거지? 자유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이라고? 아니, 결국 아직 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또다른 신분제 사회였던거야. 성적 차이로 인한 신분사회... 결국 내가 바라봤던 소수의 성공한 여성들은 이런 신분제 사회에 충실히 적응한 거고, 아예 남성적인 여자가 되어버리면서도 여성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했던 이중적인 삶을 살아갔던 거지.

사실 남성과 여성은 그냥 다른거잖아. 여성과 여성 사이에도 차이가 있듯이 말이야. 다르다는 이유로 아예 없는 어떤 것으로 취급받는 것은 너무 부당한 일이지 않아? 능력만으로, 노력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살아감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만났지. 하나의 차이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래, 난 희망을 버리지 않아.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고, 그대로의 나를, 여성으로서의 나를 긍정하며 살아가고 싶어.

총여학생회에서,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76년 추운 겨울, 얼굴이 동그란 여자가 세상에 태어난다. 세상을 동글게 살라고, 그리고 어두운 밤에 길을 밝혀주는 달처럼 되라고 그녀는 달피라 불리워진다.

아들이 없는 집안이었기에 아바는 그녀를 아들처럼 대했고, 그와는 달리 엄마는 안전하고, 세련된 딸로 키운다. 그러나 그녀는 어느 쪽의 요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약간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교복치마 밑에 체육복 바지를 입고 복도와 매점을 푹푹거리며, 친구들과의 수다로 보낸 학창시절, 일상의 개입이 얼마나 다양한 삶을 펼칠 수 있는지를 알게된다. 엄마, 아바의 정해진 각본을 처음으로 거부하며 간호학과를 들어온다.

대학에서의 그녀는 주변인이자 규정되어진 농촌의 농민들, 도시의 노동자들 그리고 거리의 노숙자들을 진료소라는 공간에서 만나며, 그들의 지친 삶과 그 지친만큼의 일상에 변화를 시도하는 힘을 본다. 그러나 아무리 바둥거려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 작은 변화들의 시도가 얼마나 효과적일지 자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녹슨 기계를 더 이상 녹슬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96년도 가을, '여성과 락'을 준비하면서, 자신을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의 언어와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여성들을 만난다. 그해 성정치 위원회에서 준비한 제 2대학의 '성이 우물에 빠진 날'에 참여하며 이 사회의 복잡한 모습과 특히, 지금까지 인지하지 못했던 가부장적 시선들에 대해 알게 된다. 그후 '여성과 문화'라는 소모임활동을 시작하며 방학 중에는 '여성자치연합'을 준비하는 모임을 가지며, 더 이상 여성운동은 나에게 있어 일시적인 축제로서가 아니라, 내 삶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바꾸어 가는 운동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여성들간의 자매애가 남자들이 말하는 의리보다 더 끈끈하며, 의미있는 것임을 깨닫는다. 이것은 내가 과에서 그리고 간호대 학생회 준비모임의 대표하게 되는 데 기본적인 마인드로 작용하면서 여성들 사이에서 이것은 꼭 지켜야 할 것임을 다짐한다. 또한, 1년동안의 학생회 활동은 이런 의미로서의 학생회를 하기에는 그것이 가지는 구조적인 결점을 깨닫게 되었고, 이 것이 우리 운동의 큰 레두리일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이번 총여학생회선거는 지금까지의 나의 한계들을 풀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학생회의 엄한 가부장성들을 벗어던질 수 있을 것이고, 여성운동을 처음 접했을 때의 느낌 그대로 신나게, 재미나게 선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나에게 있어 항상 존재했던 혼자라는 고립감들을 이제는 벗을 수 있으리라 본다. 지루한 세상에 대한 낯선 시선으로 이제는 이 고립감을 시원하게 벗어던지며, 당신과 함께 다르게 살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

자음, 이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대한 자본의 힘 앞에서, 가부장적 권력과 억압 앞에서 여성들은 계속해서 사회 밖, 침묵의 공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기를 살려야 한다는 외세울로기 앞에서 자신의 일을 가지겠다는 소박한 요구마저도 묵살당한 채, 사회에서 가정으로,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만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가만 들여다보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목소리들이 존재하는 듯 하다.

지긋하게 나이든 만큼의 체면도 없이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먹살을 잡고 싸우고 있는 국회의 사당의 명망높은 의원들의 목소리부터,

'민주주의'와 '도덕주의'를 소리높여 외치는 목소리들까지.

우리에게 언젠가부터 그 목소리들은 주장들이 신뢰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그것이 언제나 우리의 목소리가 아닌 바로 그들의 목소리였을 따름이기 때문이다. 저들이 말하는 '우리'가 허상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 모든 목소리들이 저들의 포섭과 배제의 정치를 은폐해버리려는 술책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노동, 우리의 생, 우리의 육체에 대한 결정권조차도 가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대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목소리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사적인 영역의 밀폐된 공간 안에서 여성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었기에, 내어본 적이 없었기에 어쩌면 그건 이 세상 남자들의, 가부장들의 목소리였을지도 모른다.

2.

진리와 진보의 공간, 모든 것이 자유로운 공간으로서의 대학. 12년 간의 갑갑하고 억압적인 교육을 끝내고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오지만, 한 학기가 지나고 일 년이 지나가면서 대학 또한 자치를 억압하는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모 교수와 처장의 "여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면 교세가 약해진다"는 발언

대학 교수라는 위치에서 수업 시간에 여성들을 비하하고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들을 일삼는 것

남성의 의미심장한(?) 시선을 피해 일 곳을 찾아 한집을 헤매어도 마땅히 일 곳이 없는 공간부족
들어설 자리도 없어 버려진 전 화장실

과장된 남성성으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마초맨 응원가

일상이 되어버린 내 몸 구석구석 흘리고 다니는 징그러운 시선과 성폭력적 발언과 술자리에서의 음담패설

대강당 앞 언제 부딪치고 쫓지 모르는 공의 공포 앞에서 언제나 돌아가야 하는 길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보복과 비웃음이 두려워 속으로 삼켜야만 하는 소통 기제의 부재

이런 것들이 나의 일상을 지배한다.

나의 일상 어디에서나 나는 여성임을, 소수자임을 지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3

'남성과 가족 파괴를 부르짖는 것이 페미니스트?'
여성운동가들은 가부장적 질서를
해체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성을 적으로 여기거나
가족을 파괴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성운동은

본질적으로 내화되어 있고 제도화되어 있는
가부장적 질서와 담론에 문제제기합니다.

여성운동은 '여성'임을 긍정하는 속에서,
'여성'으로서 발언하는 속에서 실천됩니다.

흔히들 '페미니스트' 혹은 '여성운동'이라는 언어에 대한 감정으로 '신경질적인', '폐쇄적인' 혹은 '적대적인' 어떤 것을 떠올린다. 또한 한편으로는 무언가 자신의 일을 갖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색시하면서 단단한 여성적인 이미지를 연상하기도 한다.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으로 맞닿아 있는 이미지들은, 보수적일 시각들을 통해 전파되면서 비하되거나 상품화된다. 그러한 시선 속에서 여성으로서 발언하고자 하는 이들은 남성집단을 적으로 하고 가족질서를 파괴하려는 자신들 속에 매몰되어 있는 동일한 집단으로 단일화된다. 이로써 여성임을 긍정하는 여성으로서 당당해지고자 하는 소수들은 배제되고 소외된다.

여성운동은 나와 우리에게 습득되어 있는 가부장적 사고와 가치들을 적으로 상징한다. 그리고 가부장적 담론을 재생산하는 남성중심적 제도들을 해체하고자 한다. 또한 서로의 차이로 인해 차별되지 않는 여성주의적인 질서에서 함께 하고자 한다.

4

여성주의적 자치는

여성 자신을 둘러싼 일상속에서의 억압을
낮선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소한 일로만 여겨져 문제제기 할 수 없었던,
그래서 이제 당연한 것으로 되어버린
가부장적인 모습에 대해 발언하는 것,
우리의 일상을 정치화하는 것,
이것이 여성주의의 실현입니다.

근대적 가족상이 사회에 확고히 위치하면서, 남성은 가족을 부양하고 여성은 가정 안에서 남성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성별분업 이데올로기가 아직까지도 일상과 사회를 규정하고 있다. 가족의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빨래하고 털어 넣고 삶고, 뒤고, 식단을 고민하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가나다라를 가르치고 따뜻한 도시락을 준비하고 쓰레기를 분리하고... 등등의 수많은 일들은 성별분업 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성만이 담당하는 사소한 일로, 부수적이고 가치없는 일을 해야 하는 어머니의 역할로 치부되었고 그렇게 여성들은 희생되었다. 그리고 여성의 문제는 개인적, 사적인 것으로 거대담론에 포함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주변화되었다.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왜 유독 여성들만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는가?

일상의 정치화는 그동안 여성이 담당해 왔던 개인적인 것이고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어왔던 여성과 여성 일상의 가치를 인정하고 긍정하는 것이다. 동시에 성에 따라 역할이 규정되는 여성 각각의 가치들이 정형화된 틀 속에서 구조되는 제도와 담론에 문제제기하는 것이다.

5

여성주의적 자치는
나의 다름을 발현하고,
너의 다름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질서를
일구어내는 것,
이것이 복수의 주체들 속 관계망에서
진정한 자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강함', '거셈', '힘있는', '결단력있는'
'약함', '부드러운', '세심한', '소심한'

흔히들 앞의 것을 남성성, 남성적인 이라고 칭하고, 후자 쪽은 여성성, 여성적인 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남성적인 /여성적인 어떤 것에 우등/열등의 등식이 적용된다. 물론 이러한 이분법과 '남성'과 '여성'이 반드시 통치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남성에게는 남성성을, 여성에게는 여성성을 요구하고 훈육한다. 그리고 훈육되지 않은 소심한 남성과 강한 여성을 배제한다. 여성주의는 정형화된 차이를 거부한다. 그리고 각자의 자유로운 차이를 인정한다. 차이의 인정은 성적인 차이에 대해 우등/열등의 이분법을 적용하여 차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여성주의적 자치의 전제는 성적인 차이의 인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의 인정은 확대되고 확산되어 인종과 지식의 정도, 정상과 장애의 차이로 인해 배제되거나 억압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치가 모든 차원에 걸친 의식과 현실의 변형으로 이끄는 다양한 사회적 실천들의 집합이라고 할 때, 여성주의적 자치는 다양한 집단들의 차이를 차별화하지 않으며, 각각의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함께 하는 질서를 의미한다. 여성주의적인 자치는 일방적이고 고립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소통과 변화가능한 관계를 실현하는 것, 즉 연대를 통해 의미로워진다.

엄마의 발

김승희

딸아 보아라,
가고 싶었던 길들과
가 보지 못했던 길들과
잊을 수 없는 길들이
오늘 밤 꿈에도 분명 살아 있어
인두로 다리미로 오늘 밤에도 정녕
떠도는 길들을 꿈 속에서 꼭꼭 다림질해 주어야 하느니
네 키가 점점 커지면서
그림자도 점점 커지는 것처럼
그것은 점점 커지는 슬픔의 입구,

세상의 딸들은 하늘을 박차는 날개를 가졌으나
세상의 여자들은 아무도 날지 못하는구나.
세상의 어머니는 모두 착하신데
세상의 여자들은 아무도 행복하지 않구나





행동 1. 총여학생회를 '기구'가 아닌 1. "여성주의적 자치질서"로 구성합시다.

"어느 누구도 나의 권리를 대표할 수 없다"
일상의 정치:여성 자치 실현을 위한 "table(운영위원회)"을 제안합니다.



1. table의 구성과 활동은?

- 누가 : 여성으로서 발언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한시적 모임, 자치단체 모두.
무엇을 : 각자의 문제의식을 소통하고, 의견/요구/활동들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 제안된 사안은 견해나 가치관의 차이를 이유로 배제되지 않으며, 논의과정을 통해 참여자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이후 제안된 사안에 동의하는 개인이나 한시적 모임, 자치단체들은 함께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장단 : 개인, 한시적 모임, 자치단체의 상위 결정권자가 아니며, 따라서 여타의 참여자들과 동등한 발언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table의 대표 역할을 수행하며, 내적으로 table 운영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2 총여학생회 예산과 공간의 운용

예산 : 모든 예산의 배분은 table에서 공동으로 논의, 조율, 결정, 집행됩니다. 이전의 학생회 구조에서는 모든 재정이 학생회로 집중되고 그것이 학생회의 집행부에 의해 결정, 집행되었던 것과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공간 : 지금의 총여학생회 공간을 총여학생회 '기구'만의 공간이 아닌 여성운동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치공간으로 개방합니다.

행동



3 모임과 모임, 개인과 모임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소식지 발행 : 예산의 결정, 집행을 비롯해서, table에서 논의된 모든 내용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각자의 활동들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통신공간 : 현재 참세상에는 연세대학교 여성자치단체들의 공동방이 있습니다. 이 방을 보다 활성화시키면서 통신을 이용한 의사소통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갑니다.

의견함 비치, 일상적 백지자보 부착 : table의 활동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통로이며, 이를 통해 문제제기/ 제안/요구/ 논의 안전 상징 등이 가능합니다.



여성주의적 자치질서를
구현할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행동 2. 공포탈출 one! 反성폭력 운동을 전개합니다.

대학을 성/폭/력/해/방/공/간으로 만듭시다!



I. '정력가', '마초맨'은 이제 그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대동제, 연고제를 통해 발현되는 남성중심적 문화에 반대합니다.

II. '反성폭력학칙제정위원회'를 건설합니다.

반성폭력학칙은 소수의 여성운동가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반성폭력학칙제정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타학생회와 연대하여, 성폭력 학칙을 학생들의 손으로 만들고 이를 학교에 요구합니다.

III. 反성폭력 자치규약제정운동을 전개합니다.

겉대기뿐인 학칙제정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일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학칙제정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학생회이든, 학회이든, 동아리이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자치규약제정운동을 벌여나갑니다.



행동 3. 공포탈출 two! 여성의 일할 권리를 주장합시다.



I. 한 달에 한 번, “여대생 살길 만들기 워크숍(가칭)”을 개최합시다.

대학에서 사회로 진출하는 여성들이 겪게되는 불평등한 생활에 대한 생생한 현장 경험, 취업 정보,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 등 - 다양한 내용, 다양한 형태의 강화를 통해 여성노동에 대한 일상적인 공유를 형성해나갑시다.

II. 3·8 세계여성노동자의 날! 5·1 세계노동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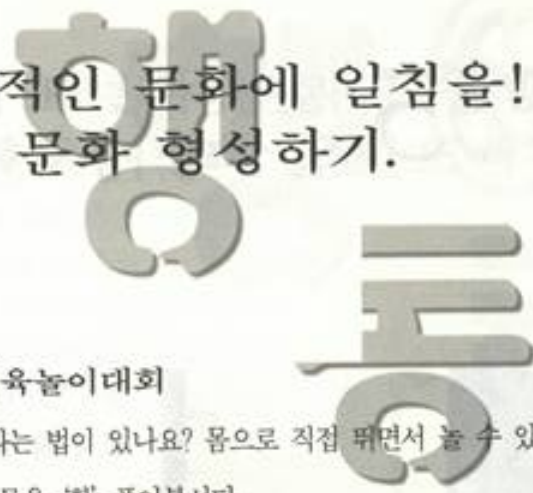
‘노동’은 분명 남성들의 것만이 아닙니다. 여성노동권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축제의 자리로 만들어봅시다.

III. 실업은 나만의 고민이 아니다! 대학과 사회의 경계 넘나들기

- 다른 학교의 여대생들과 연대를 모색하는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연대]에 참여하면서 현재의 실업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만들어나갑시다.
- 현재 여성실업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배제된 여성노동의 문제를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매김합시다.



행동 4. 남성중심적인 문화에 일침을! 여성들의 문화 형성하기.



I. “막상 해보면 재밌다!” - 체육놀이대회

연고제 또는 대동제. 여성은 구경만 하라는 법이 있나요? 몸으로 직접 뛰면서 놀 수 있는 놀이들을 만들어 움추려져 있는 우리들의 몸을 ‘활’ 풀어봅시다.

II.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보자!” - 말하기 워크숍

- 이 사회에서 여성들의 말은 감정적인 것, 비논리적인 것,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서로 간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수다 한 판으로 여성 특유의 의사소통 방식을 개발합시다.
- 여성들을 불쾌하게 하는 성폭력적인 발언·행동들.....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모색해봅시다.

III. ‘나도 하고 싶다!’ - 여성문화페 만들기

- 여성 락그룹, 노래패, 풍물패 등 각종 문화단체, 행사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봅시다.
- “길들여지지 않는 자신감으로 축제의 장을!” - 여성문화제
- 모든 자치단체와 여학우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임을 당당히 긍정하는 여성문화제를 개최합시다.





행동 5. 불평하고 요구하자! · 일상의 정치학(여성과 대학 공간)



I. 여자화장실을 넓히고 시설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여기 남녀공학 맞아? 여자화장실의 수도 적을뿐더러
너무나도 비좁지 않습니까? 가방걸이도 너무나 미비해
화장실에 간다는 것이 거추장스러운 일이 되버렸습니
다. 남녀공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여자화장실에 대해
문제제기합니다.

II. 신축건물에 여학생휴게실을 의무화
하도록 학교당국에 요구합니다.

여학생휴게실은 여성을 대상화하는 남성들의 시선을
피해 여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자 여성들의 일상적
문화를 형성해나갈 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 자치
공간으로서의 휴게실을 신축건물마다 의무화할 수 있
도록 요구합니다.



III. 기숙사로 가는 어두운 길, 기숙사 음란전화 - 방치하지 맙시다

· 해가 지면 너무나도 공포스러워지는 기숙사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가로등을
설치를 요구합니다.

· 여자 기숙사의 신고식처럼 되어버린 음란전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행동 6. 여성주의 담론 생산과 확산의 · 중심으로서 여성학 생활도서관

행동



- 제10대 총여학생회에서 만들어 총여 산
하에 있던 생활도서관을 독립시켜 여성
자치의 중심지로 만들어봅시다.
- 여성학/여성운동 관련 서적과 각종 소식
지, 논문, 자료 비치하여 여성들의 일상
적인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생활도서관 중심으로 여성학 커리 뱅크
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성학 세미
나를 활성화합니다.

승리들의 공약은 어디까지나 제안입니다.
총여학생회가 소수의 것이 아닌 만큼,
선거 공약 또한 소수의 실방적인 사업들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여성주의적 자치질서! 학생사회의 여성주의적 재구성을 주장한다.

1. 대학은 성차별의 예외공간이 아니다.

총학생회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질문 중 하나는 '총남학생회는 없는데 왜 총여학생회는 있느냐?' 또는 '논지방은 있는데 왜 남학생 휴게실은 없느냐?' 라는 식의 질문이다. 감히 말하건대 이는 평등에 대한 조야한 의식의 발로이자 여성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물이해로부터 나오는 감정적인 질문에 지나지 않는다. 한번 물어보자. "당신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한 것인가?" 라고, 혹시 스스로 지성인이라 자처하고 있지만 자신의 깊은 곳에서 당신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지는 않은가? 만일 당신이 현재 여성이 차별받고 있고 여남 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 정도는 당연히 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면 당신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무시한 채 모든 면에서 여성과 남성이 똑같아져야 한다는 식의 질문을 던져서는 안 된다.

대강당 앞을 지날 때의 여성의 공포를 떠올려 보자.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 앞을 지나면서 언제나 저 공이 자신에게 달려들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내내 경계의 촉각을 곤두세운 채 걸어야만 한다. 또 햇볕 따사로운 봄날 그리고 가슴까지 시원케하는 가을 하늘 아래, 누구나 한 번쯤은 잔디밭에 다리 쭉 펴고 누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감행하기 위해서 여성들에게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들을 감내할 만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여학우 중 어떤 이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스스로가 여성이라는 생각을 별로 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맘대로 할 수 있었고 내가 딸이라는 이유로 또는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크게 차별받아 왔다고 생각지 않는다."라고 반문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그녀란 이 사회에서 극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조건을 가진 행운아이거나, 스스로를 남성이라고 가장해 온 또는 그러기를 강요받아 온 명에 남성일 것이다.

좁은 지면에서는 도저히 모두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일상의 차별, 때때로 총남학생회로만 존재해왔던 총학생회의 위상들과 도둑맞은 것들을 우리 손으로 찾아야만 한다는 당위, 이것이 바로 여성운동의 필요성이며 동시에 학생사회에 총여학생회가 건설된 이유이다. 대학이란 사회(체제) 유지를 위한 가치들이 끊임없이 투입되고 재생산되는 장으로, 결코 사회와 분리된 채 사고될 수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대학은 사회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이라고 해서 성차별 또는 성억압에 있어 예외 공간일 수는 없다.

우리는 분명히 억압받는 자로서의 분노에서 출발했지만, 그것은 단순히 덜 가진 자로서의 투덜거림이나 떼쓰기가 결코 아니다. 이제는 억눌려 온 여성들이 자신의 갑갑한 일상에 대해 당당하게 거부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목소리를 배제당해 온 여성들이 가시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러한 목소리들은 아마도 기존의 관계와 질서에 균열을 낼 수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해 만들어진 혼란 속에서 새로운 관계와 질서에 대한 모색과 실험이 가능할 것이다.

2 총여학생회는 여학생의 대표기구가 아니라 여성운동을 위한 질서로 사고되어야 한다.

2-1. 총여학생회는 여성을 대표하거나 대신하지 않는다.

총여학생회에 대한 고민은 "학생회"에 대한 기존의 고민들과 다른 지평 위에 서 있다. 즉, 지금의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대중/정치조직의 딜레마는 총여학생회 상에서 다른 틀로 전화되는데, 왜냐하면 총여학생회는 여성운동이라는 정치 지향성이 인정되는 공간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여성 억압의 작동 방식에 있어 또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대중'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대중'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동일성의 정치" 혹은 '2만 연세'라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비판해 왔던 맥락에서이다. 현재 학생사회와 학생운동은 특정 모순을 중심모순으로 설정한 채, 연대의 가능성을 스스로 봉쇄하고 있으며 정파 간의 대립 구도 속에서 각자가 '2만 연세'의 대표임을 자임하고 그것을 자신의 운동의 정당성으로 삼기 위해 목적과 방법이 전도된 운동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각 정파는 선거에서의 승리를 자신 운동의 중요한 존립 조건으로 설정하고 단지 이기기 위한 싸움으로 자신들을 채찍질해가고 있다. '2만 연세의 이름으로 00을 주장합니다.' 또는 '연세인이라면 00...'이라는 식의 언술은 그 안에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정치적 파급력

좁은 지면에서는 도저히 모두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일상의 차별, 때때로 총남학생회로만 존재해왔던 총학생회의 위상들과 도둑맞은 것들을 우리 손으로 찾아야만 한다는 당위, 이것이 바로 여성운동의 필요성이며 동시에 학생사회에 총여학생회가 건설된 이유이다.

여성운동을 하는 우리에게 5천 여학우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문제는 그것이 실체되고 확장될 수는 있을지언정 '대표'될 수는 없다. 따라서 기존의 '대중조직으로서의 학생회'가 의미해왔던 수렴, 대표, 조합 등의 문제설정은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총여학생회 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도 지니고 있지 않다. 구호를 위한 구호들의 남발은 다만 학우들과 운동하는 이들 사이의 간극을 점점 더 넓혀갈 뿐이다.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자신의 운동성의 정당성이 인정받았다거나 자신이 대표로서의 상위권위와 권력을 가진다는 식의 사고는, 결코 '자치'를 남발하는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이들의 것이라 할 수 없다.

여성운동을 하는 우리에게 5천 여학우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문제는 그것이 설득되고 확장될 수는 있을지언정 "대표"될 수는 없다. 여성들 내부에서도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들이란 총여학생회라는 "기구"에 의해서 "수렴"되거나 "대표"되거나 "대리"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각자가 선 자리에서 운동이 발생하고 그 운동의 흐름들이 연대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기존의 "대중조직으로서의 학생회"가 의미해왔던 수렴, 대표, 조합 등의 문제설정은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총여학생회 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감히 말한다. 아무도 개인의 권리와 정치적 의사를 대표하거나 대신해 줄 수 없다! 또한 문제의식이란 위에서 아래로 던져지는 것이 아니다! 고민해야 할 것은 개개인의 존재조건의 차이와 변화를 면밀히 읽어내고 그러한 분석 속에서 각자의 정치성을 발현하는 것이다.

2-2. 총여학생회는 '기구'가 아닌 필서로 존재해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여성주의적 자치에 "방해가 되는" 학생회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한 번의 선거를 통해 1년 동안 '기구'로 고정되어버리는 학생회, 원칙상 UNION SHOP이지만 실제로는 극소수의 학생회 '임원'들만이 구성하는 학생회, 따라서 원칙상 무조건 '학생회의 일원'이 되지만 실제로는 '학생회(집행부)'에 요구해야 하는 '학생회'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구로서의 학생회"라고 부른다.

그러나 우리가 주장하는 총여학생회는 "기구"가 아니라 "필서"로서 존재해야 한다.

우리들에게 정치란 결코 단일할 수 없으며 어느 것이 다른 어느 것보다 우월한 것이거나 중심적이지 않다. 사회 속에 존재하는 인간 개개인은 상이한 권력관계의 교차지점에 위치하며, 그 개개인의 상이한 존재조건 속에서 다양한 저항의 진지가 구축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차이란 결코 겹치지 않는 벤다이어그램이 아니기에 각 개개인은 하나의 집단 또는 개인으로서 다양한 연대의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여성주의적 자치에 "방해가 되는" 학생회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한 번의 선거를 통해 1년 동안 '기구'로 고정되어버리는 학생회, 극소수의 학생회 '임원'들만이 구성하는 학생회, 따라서 원칙상 무조건 '학생회의 일원'이 되지만 실제로는 '학생회(집행부)'에 요구해야 하는 '학생회'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구로서의 학생회"라고 부른다.

2-3. 일상에 대한 댄지걸기:

자치의 시작이자 자치필서의 존재조건이다.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농담과 여성으로서 겪는 불편함에 대한 문제를 '대표'로서의 총여학생회가 대신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일상의 곳곳에 작은 진지들을 마련하고 끊임없이 주위의 환경들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만이 '여성으로서'의 부당한 차별을 벗어나는 출발점일 수 있다. 일상에 대한 댄지걸기! '대표'가 아닌, 바로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지반에 대한 일상의 정치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우리 스스로 지반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여성주의적 자치필서'의 시작이자 존재조건일 수 있다.

여성의 입장에서 누구나 자신의 문제의식을 풀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상을 정치화하는, 그래서 우리의 지반을 넓혀나갈 수 있는 '자치의 흐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모두가 "총여학생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라는 당연한 전제가 실현되는 것이며 이는 총여학생회라는 상을 우리 모두의 것으로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제 당신이 바로 총여학생회이고 '자치단체'가 총여학생회이므로 바로 당신 자신에게 요구하고 당신과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서로가 우리의 문제를 조율하는 소통과 연대의 필서인 "자치필서로서의 총여학생회"만이 우리에게 존재한다.

2-4. 자발적인 흐름들과의 관계맺기: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구성원들이 '여성'이라는 단일한 이름으로 묶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당장 공대와 문대의 상황이 다르고, 각각이 고민하는 문제들이 다르다는 것들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여성들을 가로지르는 조건들이 다양하다고 해서 우리가 소통하고 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한번에 혼자서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서로 소통과 연대를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필서로서의 총여학생회"이다. 서로 다른 차이들을 인정하고, 그 기반 하에 각각의 '조건' 아래서 일상을 정치화하는 다양한 흐름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는 "자치필서"가 총여학생회이다.

협의체로서의 TABLE을 제안한다! - 여성의 자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 이것은 각각의 자치흐름들이 최대한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해 table을 제안하는 것이다. 여성으로서 발언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한시적 모임, 자치단체 모두가 이 table에 참여할 수 있고 각자의 문제의식을 풀어내면서 어떠한 공공이든 함께 벌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을

일상에 대한 댄지걸기! '대표'가 아닌, 바로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지반에 대한 일상의 정치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우리 스스로 지반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여성주의적 자치필서'의 시작이자 존재조건일 수 있다.

것이다. 어떤 활동들이 제안되었을 때 그 논의의 결정방식은 각각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 따라, 서로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다. 여기서 우리는 여성운동에 관한 견해나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논의의 과정에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한 활동들이 보장받도록 하는 것을 제일원칙으로 한다. 오히려 그 차이들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설득할 수 있고 논의 후, 동의 혹은 반대의 운동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촉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table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소통/활동을 제안/의견교환뿐만 아니라 재정이나 공간문제를 조율하는 장이기도 하다. 기존의 학생회 집행부에 의해 예산이 결정되고 분배받는 방식이 아니라 table에서 공동으로 논의하고 서로의 상황에 따라 조율하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모든 예산을 집행한다. 공간문제의 경우 지금의 총학생회실을 총학생회 '기구'만의 공간이 아닌 여성운동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치공간으로 개방하여 어떻게 같이 쓸 수 있을지 논의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table을 통해 논의된 모든 내용을 공개화하고 각자의 활동들을 제안할 수 있도록 '소식지'를 발행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참여의 기회와 폭을 넓힐 수 있으며 또한 통신공간이나 의견함/백자자보로 자신의 의견이나 문제제기를 직접 할 수 있다.

3 선거는 이미 여/성/행/동의 장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뛰어들려고 하는 '선거'라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총학생회는 '기구로서의 학생회'이기를 부정하는데, 왜 선거를 해야 하는가?

사실 기존의 선거판에 대한 비판과 냉소와 회의는 다들 알고 있던 바이다. 빚을 내서라도 몇백 만원씩 돈을 모아야 하고, 생전 안 입던 정장을 사 입고,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날씨 좋은 날을 골라 사진을 찍고, 유권자들이 '혹할 만한' 정책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여기저기 얼굴을 많이 비추어야 하는, 그리고 그렇게 얻은 표를 가지고 "우리는 대중으로부터 인정받았다"라고 자임해버리는 메커니즘이 바로 선거이다. 그리고, 도장을 찍음으로서 자신이 말할 기회, 자신이 행동할 조건, 자신이 결정할 권리를 소수의 사람들에게 "위임"하고 1년동안 편안한 무임승차를 누리는 "길들여진 수동성"을 재생산하는 것이 바로 선거이다. 이런 선거 판에서는 당선된 기쁨도 잠시일 뿐 "우리를 당선시킨 이 표들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질문해 보았을 때는 너도나도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다.

분명히 학생사회에서 선거에서 승리하고 학생회를 '잡는다는 것'은 특

별한 지위(대표기구)와 물적 기반을 확보함을 의미한다.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각 조직은 자신의 운동(조직)을 떠나가는 데 필요한 물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을 갖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지금의 학생회 구조에서는 모든 재정(학생회비)이 총학생회에 집중되고 일차적으로 그것이 중앙운영위원회(각 단대의 회장과, 총학생회 대표 그리고 총학생회 대표, 동아리 연합회 대표로 구성된다)의 의결을 거쳐 각 단대로 배분되면 그것으로 공동의 논의는 끝나버리며 대화의 가능성은 차단되어 버린다. 예산이 분배되고 나면 각자가 점유한 그 모든 예산의 관리·의결·집행이 각 학생회의 집행부에 의해 독점되며, 어떠한 행사나 활동을 벌이고자 하는 자치단체들이나 소모임들은 마치 누군가에게 돈을 빌어쓰는 사람처럼 어렵게 요구를 해야만 하는 것이 지금 학생사회의 '자치'의 현실이다.

정리하자면 현재와 같은 학생회 구조란 '자치'를 담보해내지 못하는 형태인 것이다. 이에 대해 누군가는 "그렇다면 왜 선거라는 게임에 뛰어들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것이다. 우리는 이에 "여성운동을 하는 우리 역시 자치운동체이며 따라서 우리 역시 자치 운동의 실현을 제약받고 있는 구조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정치적 이상과 현실적 가능성은 분명히 구분되어 사고되어야 하며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상을 영원히 지연된 무엇으로 남겨두지 않기 위해 직접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을 물질화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선거판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우리가 선거판에 뛰어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선거판에 뛰어들었는지 그렇지 않은 간에 선거판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보단의 이미지와 말발이 아니라 선본의 정책과 공약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선거, 행동을 제한하는 '시행세칙'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고 그러한 발언들이 각축하고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선거, 즉 1년동안 당선된 자들의 모든 입장과 발언과 사업을 정당화시켜주는 기제가 아니라, 초안으로서 작성된 일련의 정책/공약들에 대해서 설득하고 동의와 지지를 구하는 것으로서의 선거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찍으려는 그 표는 당신의 대표자를 뽑는 표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얻은 표를 "유권자의 권리를 우리에게 위임한 표"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유권자의 의무를 우리가 대신 짊어져야 하는 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정치를 선전하고, 우리의 정치를 설득하고, 그리고 그 동의를 표현들을 만나고 싶을 따름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거를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행동을 제한하는 '시행세칙'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고 그러한 발언들이 각축하고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선거, 즉 1년동안 당선된 자들의 모든 입장과 발언과 사업을 정당화시켜주는 기제가 아니라, 초안으로서 작성된 일련의 정책/공약들에 대해서 설득하고 동의와 지지를 구하는 것으로서의 선거이다.

남녀공학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느 여학생의 일기 중에서...

3월 ○○

시간은 정말 지리하게 흘러간다. 사실 두렵다. 이제 학기가 시작하지 단 2주도 지나지 않았건만, 마음 한 구석에는 뭔가 이런 건 아닌데 하는 쓸데없는 의구심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 2 주 동안 지겨울 정도로 똑같은 나날이 반복이 되었다. 시간표와 강의실을 확인하고 어썬무썬 강의에 출석하고 나면 어떤 종류의 술 모임에 우루루 휩쓸려 간다. 그리고는 '아셔라, 무어라, 노래하라' 외에는 아무 것도 남지 않는 것이다.

처음에는 기분 나쁘지는 않았다. '아, 나도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술을 마실 수 있다. 나도 어른이다.' 하는 심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내 이런 마음은 싸악 가셨다. 왜냐고? 나에게 술자리는 도대체 즐거운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으니깐. 우리 과 남자 선배들, 동기들은 술을 즐기는 친구에게는 여자가 무슨 술을 저렇게 마셔대느냐고 빈정거리다가는 여학생들이 술이 더 센 것이 아니냐며 나에게 다시 술잔을 들이민다. 난 술을 잘 못하지만 웬지 지기 싫은 마음이 앞서 무리를 하기도 한다.

그러면 한 마디씩 한다.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많이 마셨니, 기집애가." 쓸데없는 오기였나? 하긴, 내 친구처럼 취급받고 싶지도 않은데. 나도 내 속을 모르겠다. 대개 11시쯤 2차를 갈 때가 되면 대부분 여자 친구들은 통금이 있다며 집으로 가 버린다. 늦게까지 남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늦게까지 남아 있는다고 해도 별 볼일도 없다. 나는 없는 거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 버리는 하지만... 속단하지는 말자. 누구 말마따나 아직 서로 안 친해서 그러는 거겠지. 내가 너무 소심해서 그러는 것이겠거니...

술자리 뿐이냐고? 아니다. 강의도 마찬가지다. 일단 강의 내용에서도 별 볼일이 없지만, 교수나 강사들 왜나 짜증나게 한다. 어떤 전공 수업 교수가 그런다.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도록 해. 우리 과 학생들은 어차피 일등 신랑감이니깐, 연애 걱정은 너무 하지 말고." 그런가 하면 교양 수업 강사는 뭐라고 했게? "두 실험 결과가 다르죠? 왜냐면 요즘에는 무슨 말만 하면 여자들이 난리를 치잖아요." 제길, 한 마디 덧붙이자면 그 과목은 그 자체로도 불쾌하다. 내가 여자라는 것을, 여자들이 얼마나 신경질적이며 우스운 행동을 하는가를 끊임없이 알려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별 수 있는가? 어쩔 수 없는 과학적 실험의 결과라지 않는가?

그건 그리고 특하면 "요즘엔 여학생들도 남자 못지 않게 터프해."라며 '칭찬'하는 교수도 있지만 난 별로 기분이 좋은 건 아니다. 갑자기 기억이 난다. 합격증 받아들고 '연세'라는 세련된 이름의, 우중충한 대학 캠퍼스를 직접 밟았을 때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었다.

5월 ○○

그 동안 통 정신이 없었다. 지난 번 중간 고사는 그런대로 잘 본 것 같다. 요즘은 주로 도서관과 학교만 오간다. 이를 막으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깐. 요전에 한 XY가, "우리 과는 여자들이 평균을 다 올리는 것 같애."라고 말하자, 재수 없는 다른 XY가 그러는 것이다. "걱정 마. 그 애들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 점점 떨어지게 될 걸. 중학교 때 나보다 공부 잘했던 여자애들, 지금은 다 나보다 못한 대학 다니잖아." 내가 쏘아보자 녀석은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이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것이었다. "너희들은 우선 체력부터 팔리잖아. 더구나 여자가 남자보다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이걸 타고난 거래. 물론 가끔씩은 그런 걸 극복한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너무너무 분했다. 친하게 지내던 남자 선배에게 그 기분 나쁜 일을 이야기했다. "현실은 냉정하게 받아들여야지. 남자와 여자가 다른 건 사실인데. 너희들은 그래도 학점을 남자애들보다 더 받아야 취직이 될걸. 기왕 이런 힘든 길을 택했으니 여자라고 화달라는 소리하지 말고 몇 배 열심히 노력해야지."라며 고맙게도 그 선배는 자상하고 부드러운 '조언'을 아끼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그 예쁘지도 않은 얼굴을 가까이 가져와선 비비적대는 거다. 싫다는 표현을 하니 그가 말한다. "까식, 그도 여자라고." 뭔가 억울하다, 불쾌하다, 폐렴척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내 머리 속에는 온통 '억울하면 출세하라'라는 말밖에 생각나지 않는 것이다. 오냐, 브란 듯이 당신들에 굴하지 않는 멋진 모습을 보여 주고 말 테다.

나는 다시 희망이라는 병에 걸려 야심에 부풀었다. '졸업 후에는 나는 멋진 전문직 여성이 되어 있겠지. 틀림없이 유능함을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거야. 세련된 자세와 품위있는 매너로 나에게 걸맞는 그런 애인을 '선택'해야지. 당당하게. 저런 덜 떨어진 남정네들은 말고. 나중에 학교의 초청을 받아 여후배들에게 어떻게 성공했는지 과시도 하고... 남자들도 내가 보통 여자들과는 다른 부류라는 것을 인정해 줄 거야...' 벌써 그렇게 다짐하고 입술을 깨문 지 한 달이 흘렀다.

그런데 또다시 걱정이다. 빌어먹을, 그리 유쾌하지 않았던 오늘 일 때문에 마음이 싱숭생숭 심란하기 그지없다. 아침부터 기분이 이상했다. 꼭 생리가 있는 것 같아 화장실로 들어갔다. 마음은 조금할 수밖에 없었다. 화장실에는 사람이 오늘따라 많아서 꽤 기다려야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여자 화장실이 없는 층이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안에는 칸도 부족하다. 남자들은

두 종류의 면기를 다 쓰니까, 우리들의 화장실이 더 넓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흔히 말하는 오버 페미니스트가 되려나? 오호호, 이런 니밀, 생리였다. 생리대가 없어서 뛰어서 교문 밖 편의점까지 뛰어갔다 왔다. 이러고 나니 평소답지 않게 여가저가가 아프다. 얼른 처리하고 화장실을 나서려는데 고등학교 동창인 애가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화장하는 데나 관심 쏠느냐 비웃었지만 내색하지는 않았다. 한데 오랜만에 만난 그 애가 날 우물하게 하는 거다. 그 친구는 여학생이 대부분인 과인데 교수가 소수인 남학생들을 데리고 "너네들이 잘 돼야 우리 과가 산다."며 그들만의 클럽을 만들었다는 말을 듣고 속상해 하더군. 수가 많고 적응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다. 여하튼 그 애는 그러고 나서 자기 남자 친구 사랑을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파짓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괜히 주눅도 든다. 여자가 너무 털털하지 않느냐는 말을 듣고는.

9월 〇〇

기숙사에 들어갔다. 연대에 여학생 비율이 40%에 육박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할당된 기숙사 방은 사분의 일 꼴 된다. 누구에게나 부당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다. "이 건물이 그래도 가장 좋은 건물이니 공평한 거지 뭐."

피, 졸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닌데, 더구나 그런 식의 특별한 대접은 정말이지 사양하고 싶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선정된 소수의 여성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기도 하면서 여자들끼리 반목하고 경쟁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를. 나도 그런 소수가 되고 싶어 했었고, 사실 그들은 일종의 상징에 불과한 것인데 말이다. 남녀가 평등하므로 대다수 보통 여성은 저희가 못난 것이라는... 씁쓸하다. 이제 모든 것이 예전 같지가 않다. 취업 간담회를 한다고 하지. 아마 어떤 후배는 주눅이 들것이고, 어떤 후배는 다시 한번 꿈에 부풀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한 걸. 그 선배들은 남자들의 것으로 규정된 학과의 여학생들의 심정을 모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요즘 들어 부쩍 애가 타는 졸업반 선배들을 이해할 수 있는지나 모르겠다. 아마 과거엔 똑같이 느꼈더라도 지금은 이미 유행어적 생각일 테니까. 휴, 나도 술술 탄다. 누가 그랬던고 여학생들이 너무 많아져 교세가 약해진다고. 때때로 나를 둘러싼 이 답답한 사회에 대한, 대학에 대한 울분이 터진다. 2만 연세라고? 제발 거짓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 2

김승희

아침에 눈뜨면 세계가 있다.

아침에 눈뜨면 당연의 세계가 있다.

당연의 세계는 당연히 있다.

당연의 세계는 당연히 거기에 있다.

그러므로, 당연의 세계는 물론 옳다. 당연은 언제나 물론 옳기 때문에

당연의 세계의 껍질을 벗기려다가는 물론의 손에 맞고 쫓겨난다.

당연한 세계에서 나만 당연하지 못하여

당연한 세계가 항상 낯선 나는

물론의 세계의 말을 또한 믿을 수가 없다,

하루종일 발이 푹푹 빠지는 당연의 세계를

생사 불명, 힘들게 걸어오면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은, 그와의 싸움임을 알았다

당연의 감옥이 온 세상 끝까지 먹어 치우기 전에

당연과 물론을 양손에 들고

아삭아삭 내가 먼저 뜯어먹었으면

자세히 보기 . .

이제, 자치규약을 말한다!!

성폭력 학칙 제정. 어디까지 왔을까?

아마도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총여학생회에서 크게 내세운 공약중 하나가 '성폭력 학칙제정'이었다. 성폭력이면 성폭력이고 학칙이면 학칙이지 성폭력학칙은 또 뭐냐? 올해 내내 성폭력 학칙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되어왔다. 학기초 연세인 500여명 가량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그 결과 분석 발표, 서울시내 18개 대학교 여성운동단위의 모임을 가져가면서 일단 성폭력 학칙 가안을 완성하였고 계속해서 법률적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지만 사실 학내에서 이 문제가 크게 공론화되지는 못했다고 생각된다. 다만 계속되는 성폭력 사태들에 관하여 총여학생회는 입장을 꾸준히 밝혔었고 '성폭력' 이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왔다.

올해 총여학생회는 학기초에 이 문제로 학교당국과 협상을 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만나본 여학생처, 학생처의 반응은 좀 황당한 것이었는데 성폭력에 관한 여성주의적 사고나

공동체 구성원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의미에서의 학칙이라기보다 이것을 빨리 제정하여 학교의 이미지 홍보에 나서고자 하는 그래서 '해 주겠다'는 식의 반응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방향을 다르게 설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학칙이 제정되면 학칙에 있어 누구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학생들의 목소리,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공동의

해결을 통한 가부장적 성문화의 변화는 고사하고 학교에 그저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된다는 판단에서였다. 이 문제는 사실 학교와 협상을 시작한 몇몇 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터질 때마다 입장을 발표하고 공론화함으로써 학

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 자신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자치'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이러한 공감대 형성에 있어 사회대의 '자치규약운동'이 큰 역할을 하였으며 내년에는 이렇게 작은 모임들에서부터 자신들의 이야기를 토론했고 자율적인 규칙을 정하는 분위기를 몰아 이제 학

성폭력이란 도덕적 의식이 결여된,
일반인과는 다른 특정인이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다.
그것은 성폭력적 사회구조와 문화에서
기인하는 사회적인 범죄이다.
즉 그와 같은 행동을 해도 묵인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문제인 것이다.

교에 당당히 '성폭력 학칙'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이제, 자치규약을 말한다!!

1. 성폭력의 일상성에 시비걸기

백양로를 함께 내려가던 남자 동기가 지나가던 여자를 보고 한마디!

"야, 저 여자 썩시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별종하게 아무 말도 못하거나, 마지못해 맞장구를 쳐본 적은 없습니까? 어쩌다 용기를 내어 "야, 그런 말은 성폭력적 언사 아니야?" 라고 항의를 했다가 그것이 왜 성폭력이라는 거센 항의를 받고 당황한 적은 없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대부분의 발언이란 '그것은 칭찬이지 성폭력 아니냐'라는 항의성이 짙은 대답이며, 그와 같은 반응이 돌아오는 것은 그들이 성폭력이란 개념을 현 사회에서 통용되듯

이 강간, 강간미수, 성추행 등의 수위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폭력이란 것을 그런 제한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 의거하여 성폭력의 가해자를 다수의 선량한 '일반인'과는 다른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 그리고 어째서 그러한 문제제기는 항상 불만 섞인 항의로 돌아오고, 더 심하게는 속 좁은 여자애의 말꼬리 잡기 정도로밖에 취급되지 않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과 문제제기가 바로 성폭력 자치규약 제정운동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성폭력이란 도덕적 의식이 결여된, 일반인과는 다른 특정인이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다. 그것은 성폭력적 사회구조와 문화에서 기인하는 사회적인 범죄이다. 즉 그와 같은 행동을 해도 묵인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문제인 것이다. '여자 후배들은 선배들 사이사이에 잘 끼워서 앉혀라', '넌 무슨 여자애가 그렇게 애교가 없냐?' 라는 말들이 자연스레 오가는, 술자리의 썰렁함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 (고작!) 성기중심적 응답패설 주고받기인 분위기. 그리고 거기에서 항의라도 할라치면 '분위기 가라앉게 왜 그러냐', 혹은 '잠아라, 그러다간 너 인간관계만 망친다'는

식의 말들만 돌아오는 분위기... 이와 같이 우리 주위에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분위기가말로 현 대학 사회가 '성폭력 박물관' 일 수 있게 하는 주범인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자치규약 제정운동은 지금까지 당연시되왔던 문화 전반에 대한 시비걸기와 더불어 새로운 공동체의 문

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2. 우리가 그려보는

자치규약 제정운동의 밑그림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운동의 모습을 제안한다.

우선 그 운동은 철저하게 대학내 학생 전체의 대중적인 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치규약 제정운동은 대부분의 학생회 사업들이 그러하듯이 소수의 학생회 간부들이 주체가 되고, 그 외 다수의 학우들은 그것에 대하여 피상적으로 동의만 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일방적으로 전달만 받는 위치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대학 사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개개인 모두가 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자치규약 제정운동은 소규모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그것은 단대라는 비교적 큰 단위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각 과 차원에서 진행될 수도 있으며, 더 작게는 자신이 속한 학회나 동아리 속에서도 가능하다. 아니 오히려 더 작은 단위로 내려갈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의 상과 비슷해져간다. 그렇게 작은 공동체 내에서 문제제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그 속에서 사고하고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며 그것을 통해 자신과 공동체의 문화를 바꾸어 가는 과정이 곧 자치규약 제정운동의 과정인 것이다.

그러한 과정들은 또한 자치규약이 현실적인 효력을 지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자치규약은 성폭력 학칙과는 달리 가해자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그를 처벌할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시말해서 무시해 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그러나 자치규약이 공동체 내부에서 논의를 만들어내고 활발한 논쟁과 비판의 과정을 통해 구성원들로부터 동의를 끌어내면서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구성원들의 동의 수준만큼의 문화적인 강제력을 지니고 직접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의를 끌어내면서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구성원들의 동의 수준만큼의 문화적인 강제력을 지니고 직접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폭력이 남의 일, 가해자와 피해자 두사람만의 일이라는 식의 주장은 끼여들 여지가 없다. 성폭력이 개인이 아닌 그가 속한 공동체의 문화의 문제라는 것은 성폭력 사건의 발생에서나 해결의 과정에서나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필연적으로 구성원 모두의 동의 혹은 묵인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각 개인은 성폭력 사건을 외부인의 시선으로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을 포함한

일상의 문제로 파악하고 스스로의 변화를 꾀하는 자치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3. 운동의 구체적 상, 'Beyond'의 자치규약 제정운동

이와 같은 일상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할까?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Beyond」는 유일하게 올 한해 동안 자치규약 제정운동을 벌여온 단체이다. 그들은 답답한 일상에 균열 내기에서부터 시작하였다. 너무나도 견고해 보이는 성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에 문제제기하기, 그리고 지속적인 문제제기 자체를 가능하게 만들기. 이것이 'Beyond'의 소박하다면 소박한 출발점이었다.

'Beyond'는 위와 같은 자신들의 출발점을

사회대 학우들과 공유하기 위한 자보를 붙이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논의의 여지가 다분한 항목들(예를 들면, '여성들을 외모로 평가하는 말을 하지 맙시다', '지하철이나 차 안에서 다리를 지나치게 벌리고 앉지 맙시다' 등)을 자보나 설문지 혹은 화장실의 백지자보를 통해 먼저 제시하고 그에 관한 의견들을 모으고 정리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1차 포럼을 실시했다. 1차 포럼은 예상외로 사회대 학우들의 꽤 큰 참여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반 학우들의 자치규약 초안에 대한 이의제기와 그들의 다양한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1차 포럼이 (성황리에) 끝난 후 'Beyond'는 그 결과를 공개화했고, 그에 대하여 제기된 문제들까지 종합하여 자치규약의 초안을 만들어 2차 포럼을 실시하였다. 이때의 학우들의 관심정도는 1차때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이 과정에서도 새로운 문제제기는 이루어졌고, 최종적인 자치규약은 2차 포럼에서의 문제제기까지를 논의를 통해 받아들임으로써 만들어졌다.

물론 자치규약제정운동의 일련의 과정들에서 어려움도 많았고 문제점도 많이 발견되었다. 사실 전체 논의의 과정에서 사회대 학우들 모두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보기도 힘들고, 학우들의 1차와 2차 포럼 참여율이 확연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를 불러일으키는데 실패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일상의 경험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자 성폭력의 구체적인 주위

의 사례들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에 관해서도 전적인 동의를 끌어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Beyond'의 자치규약 제정운동은 자료집 하나를 만들어 내놓은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도 더 많은 이들과의 공유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변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사회대라는 비교적 큰 단위가 아니라 각 과나 학회, 동아리 같은 더 작은 공동체 차원의 움직임들이 진행됨으로써 보완되고, 그리하여 얻어진 구성원들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여 일상을 바꾸어나가는 현실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을것이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화와 일상의 경험들을 이슈화하고 그것들을 내부에서부터 바꾸어 가는 것. 이것이 오랫동안 학생사회내에서 얘기(만)되어지던 자치의 모습임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다. 결국 행동하고 변해야 하는 것은 모두이다.



Oh! No!

세상에! 총학생회장들이 성폭력으로 사퇴를 했다고?

고려대,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성폭력 사건에 대한 반응, 그리고 우리들의 단상

지난 6월, 고려대, 성균관대 두 학교의 총학생회장들이 각 다른 자리에서 주위 여학우들을 성추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술에 취한 채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여학우들을 언어적으로, 물리적으로 성추행한 것이다. 거의 10월 달에 다 되어야 이들 총학생회장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명백한 성폭력이라는 것, 그리고 총학생회장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개사퇴를 하게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은 다양했으며, 그 반응들은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반응1: "아, 너무 한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가지고 성폭력이라고 부르나? 술취해서 그런 거 가지고, 술직이 술 마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요즘 여자애들 별 대수롭지도 않은 거 가지고 성폭력이니 뭐니 한다니까, 술 맛 다 떨어지겠다!"

성폭력을 단순히 강간 또는 강간 미수로 국한시켜 성폭력 여부를 평가판하는 것은 다분히 남성중심적이고 성기중심적(모든 것이 남성의 '성기'에 의해 결정되는)인 사고의 연장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로지 성기 삽입 여부만을 가지고 여성이 피해를 입었으니 마느니 따지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일상적으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성폭력 - 외모에 대한 말 한 마디,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버스에서 일부러 여자 몸에 밀착하는 등 - 들이 과연 여성들에게 피해가 안가는가? 이러한 남성중심적이고 성기중심적인 사고는 일상적으로 만연해있는 성폭력을 은폐하는 역할을 해왔다.

술에 취했기 때문에 성폭력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또한 성폭력으로 인한 여성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은폐해버린다. 성폭력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특정 남성에게, 특정 누구의 자제하지 못하는 본능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길들이는 이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알콜 농도는 성폭력을 평가판하는 데에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반응2: "역시 운동권들은 안돼. 운동의 도덕성이니 뭐니 하면서 운운하는데, 알고보면 개네들 장난 아니래. 운동 하는 애들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런다는 말도 있잖아. 빨갱이인데다가 독역적인 것은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고, 이제는 성폭력까지... 개네들 성적으로도 문란할꺼야. 밤 늦게까지 같이 있다가 술 마시고 같이 잤다며, 운동권들 알렸더니까!"

96년도 한총련 사태 이후로 운동권의 도덕성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이번 일도 그러한 보수적인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운동권들만 성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가 되어버린다. 성폭력에서 있어서 운동권/비운동권의 기준은 없다. 사실, 성폭력 세계2위를 자랑하는 국가에서 무슨 기준이 있겠는가?

반응3: KBC 방송국 사회부 모 기자 "아, 한 건 장았다! 운동권인데다가 심지어 총학생장인 애가 성폭력을 저지르고 공개 사퇴했다더라, 2명 썩이나! 엄청난 기사잖아! 안그래도 요즘 좀 '학' 하는 성폭력 사례

가 없다 생각했더니만..."

역시, 운동권들을 맹목적으로 비판하려는 보수 언론들의 반응 속에서 이번 사건을 운동권들을 비판하는데 이용하려는 속셈이 보였다. 또한 '성'의 문제에 있어서 언론의 선정성 또한 엿볼 수 있다. '성'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언론이 진지한 태도를 보인 적이 과연 있을까? 특히 성폭력에 있어서는 항상 '회기적인' 강간 사건만을 찾아 다니다 급급했으며 보도하는 방식 또한 시청률 높이기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더군다나 이번 일의 가해자가 총학생회장이라는 것 또한 그들의 선정성에 이용되었다.

반응4: "아, 그래도 총학생회장인데..."

화려한 선거를 거쳐 당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총)학생회장들을 신성시하는 분위기가 대학사회에 깔려있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만약 이들 총학생회장들과 주변 사람들이 성폭력을 가한 사실을 숨겼더라면, 피해를 입은 여학생들은 자신의 고통을 묵묵히 참고 지내야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조용히, 쉬쉬하면서 넘겼더라면 다른 곳에서 (또는 같은 곳에서)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가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총학생회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같은 일을 가지고도 더욱 날카로운 눈초리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대학 사회 만연해있는 성폭력에 대해 총학생회장이 자신의 행동을 숨기지 않고 공개 사퇴를 하는 모습이 오히려 총학생회장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떠한 이유에서도 성폭력이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반응5: "나쁜 놈들..."

이러한 반응은 성폭력을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하는 사고에서 비롯된다. 즉, 가해자를 비도덕적인 인간, 자신의 본능(?)을 통제하지 못한 놈으로 간주하는 것... 그리고 그럼으로써 자신은 성폭력의 문제로부터 슬쩍 피해보려는 갈망... 불행히도 이 가부장제 사회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성폭력의 사슬에 묶어버린다. 분명, 성폭력은 사회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다분히 정치적인 문제이다. 이 사회에서 남성들은 '가해자' (전복! 과격! 터프가이! 그 위대한 '남성성'의 신화!)로 길들여졌으며 여성은 잠재적 '피해자' (순결을 묵숨보다 중요시해야 하는 그 숭고한 '여성성'의 신화!)로 사회화되었다. 이렇게 봤을 때, 성폭력은 특정 개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려대, 성균관대 총학생회장들이 '나쁜 놈들'이라서 성폭력의 가해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다른 남성처럼 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으로 교육받아왔기 때문인 것이다.



성/폭/력.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매김하자.
다른 뿔을 타하기 전에, 다른 뿔을 연민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자.
20년 넘게 세워진 우리들의 사고를 문제 삼아보자.
너와 나 사이에 전선을 긋지 말고
묵력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 길들여진 우리들의 삶,
바로 그 속에서 전선을 그어보자.
이것이 일상 속에서의 정치이며
반성폭력을 향한 우리들의 싸움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IMF시대라는 말은 이제 이 시대를 일컫는 가장 흔하고 보편적인 단어가 되어 버렸다. IMF위기는 이제 더 이상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국제투기자본가들이 초래한 외환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구석구석에 침투하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삶의 작동원리로 등장한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행해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비용절감과 탄력적인 노동력 활용을 목표로 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전략으로 인해 소수의 정규직 노동자와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력을 활용하는 노동정책이 행해지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성 노동권은 위협받게 된다. 가장이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가족임금제는 본질적으로 주변적인 산업예비군으로서의

여성 노동권에 대한 인식을 배태하며 이는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여성우선해고 등의 결과를 초래한다. 가사노동, 자녀양육의 이중고를 지고 있는 여성 노동자는 결혼을 하면 회사를 그만 둔다는 이유로, 그리고 남편이 먹여살려준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노동시장의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으며 심지어 노동시장으로부터 가장 먼저 '퇴출'되고 있는 것이다.

IMF체제 이후 여성 노동권은 어떻게 흔들리고 있나?

1. 여성 노동자의 명목임금이 10.6%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2. 주변으로 밀려나는 여성 노동자 - 급속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현상

가사노동, 자녀양육의 이중고를 지고 있는 여성 노동자는 결혼을 하면 회사를 그만 둔다는 이유로, 그리고 남편이 먹여살려준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노동시장의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으며 심지어 노동시장으로부터 가장 먼저 '퇴출'되고 있는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은 유연한 노동시장 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게다가 98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파견근로제에 의하여 임시직의 고용불안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파견근로법이 적용되는 노동영역이 대부분 여성들이 맡아 왔던 노동영역이며 이러한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는 여성 노동자의 권리와 이해관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여성노동운동의 약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3. 일자리가 부족하니 여성은 집으로 돌아가라?

97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대기업의 여성우선해고의 관행은 뿌리깊게 축적된 성차별적 구조가 노동의 영역에서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해고 과정은 아주 다양하다. 주로 기혼 여성이나 장기근속여성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의 형식을 띠면서 차별적인 퇴직을 유도하거나 무연고자인 지방발령을 여직원에게 마구 내림으로써 퇴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에게는 아무 이유없이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여성의 일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여성실업의 현실 - 언니, 어머니 그리고 바로 나의 문제

하나
'광주의 ○○전자는 전 체조회시간에 '출산휴가'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시 회사에 나올 생각을 하지마라. 이후 출근하더라도 이미 일자리는 없을 것이다' 하며 공공연하게 출산휴가에 들어간 여성들에게 퇴사를 통용하였다.'

일반적인 개념의 실업자는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실업자들이다. 남성 생계부양자 논리에 의해 여성들은 정리해고 일순위에 올라 있으며 이들의 실적이 생존권과 직접적으로 결부된다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여성들은 실직의 공포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둘
"얼마 전에 아빤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하셨다. 아빤 집에서 한숨만 푹푹 쉬고 계시고 엄마는 그런 아빤의 눈치를 보느라 아빤의 명예퇴직에 대해서 별 말씀이 없으시다. 하지만 엄마는 아빤 몸매 일자리를 알아보고 계신다. 이대로 가만 있을 수는 없다며 힘든 일이라도 하려고 하시지만 마땅한 일자리도 없고 막상 일자리가 있어도 엄마 같은 나이 많은 아줌마는 일을 시켜주지도 않는다고 한다."

비경제활동인구로 있다가 경제위기로 인한 남편의 실직과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는 전업주부들의 경우 이들은 연령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숙련수준이 대체로 낮으며 상대적으로 하위직종에 취업되기를 희망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기는 힘들고 특히 40세 이상의 여성들은 갈 곳이 없는 상황이다.

셋
"남편이 죽은 지도 벌써 6년이 다 되어간다. 남편을 보내고 난 직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앞길이 막막했지만 그래도 어렵사리 일자리를 구해 지금까지는 애들 학교도 보내면서 그럭저럭 살아왔다. 하지만 요즘은 6년 전 남편을 보냈을 때보다 더 힘든 것 같다. IMF지 편지 하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는 나가라고 그러고 최소한 애들 학교는 계속 보내야 하고... 눈앞이 캄캄하다."



실직여성가장들, 그 중에서 40대 이상의 여성들은 재취업하기 힘든 계층이므로 이들의 실업기간은 길어지고 또한 이들의 실업문제는 생계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우리들

"올해 우리과에서 여자선배는 단 한 명도 취직 못했단데... 도서관에 자미 말아놓고 맨날 공부만 하는 여자선배들도 많이 봤는데 왜 한 명도 취직이 안 된거지? 정말 일자리가 없다고 하 더니만... 난 아직 1학년이니까 그 언니들의 문제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지만 이만한 상황이 정말 몇 년만에 나아지지도 않을 것 같고 결국엔 나의 문제가 될텐데... 너무 막연하다. 고시나 준비해볼까?"

98년 7월 여성 신규실업자는 5만 9천명으로 전체 여성실업자의 10.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남성 실업자 중에서 신규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6.0%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위기 이후 전반적인 신규채용의 감소와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채용차별의 심화가 맞물리면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만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향후 몇 년간 여성대졸 인력은 거의 대부분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될 것이며 그 결과 우리들은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없는 비운의 세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성실업률 63%, 남성실업률 85%

-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앞에서 살핀 것처럼 여성실업의 현황은 남성에 비해 훨씬 심각하지만 여성실업률은 남성실업률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많은 수의 여성실업자들이 무급가족종사자(주부?)로 위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실은 실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여성들은 무급가족종사자로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률에 포착되지 않는다. 또한 여성실업자의 상당수는 취업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활동을 포기함에 따라 통계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불경기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이 대거 실직되는 모습이 많

이 보이기도 하지만 생계의 곤란으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가 구직전선에 뛰어드는 모습 역시 흔하다. 후자의 경우에도 분명히 실업자로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됨으로써 여성실업률에서 제외된다.

이에 우리는 주/장

/한/다!

1.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하라

현재 우리사회의 실업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노동자들끼리의 공존을 도모할 수 있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를 나눠 가지는 과정에

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를 나눠 가지는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가 또 한번 소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자본주의적 모순이 가부장제와 결합하여 노동의 영역에서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출된 일자리를 나눠 가지는 과정에 여성 노동자가 남성 노동자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여성의 공직 진출을 원천봉쇄하는 군복무 가산점 부여 제도를 철회하라

"여성은 필기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맞아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올 5월 순천지방 철도청 일반기계직(9급) 합격선은 100점 만점에 100.5점이었다고 한다. (경향신문, 98년 9월 16일) 그 이유는 지난 8월 21일 시행령이 통과된 제대군인지원법 때문이다. 물론 짧지 않은 시간을 의무적으로 군대에서 보내야 하는 남성들에게 보상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신체적·성적 요인으로 군복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기존의 성차별적인 고용관행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7급, 9급 공무원 채용시험 시 군가산점제를 적용하면 50점에서 30점까지의 가산점이 부여되며 이것은 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치열한 경쟁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여성을

비롯한 군미필자들은 만점을 맞아도 시험에서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을 고착화하는 군복무 가산점제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3 정보공개 청구권 보장하라

외모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지 않아서, 아니면 단지 여자가기 때문에 입사시험에서 떨어졌다는 상상은 누구나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채용시에 성별 혹은 외모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들을 적용하는 것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다.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 '정보공개 청구권'이란 자기가 왜 입사 과정에서

떨어졌는지 기업에게 그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미 외국의 경우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정보공개 청구권'은 특히 채용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성차별적 관행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권'은 여성 노동권 확보

에 너무나도 제한적인 대응책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한국 기업들의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적 관행에 문제제기하고 최대한의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나갈 것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특히 여성 신규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대생들의 절실한 목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Oh! No!

기억하십니까? '마초맨'!

회날리는 머리, 마쵸 마쵸 마쵸-맨
딱 벌어진 어깨, 마쵸 마쵸 마쵸-맨
어느 곳에 있어도 내가 부르면
언제라도 달려와 우리를 지켜줄
외쳐보자, 다 같이 마쵸 마쵸 마쵸 맨
불러보자, 다 같이 마쵸 마쵸 마쵸 맨

올해 연고제를 맞아 우리 학교 응원단인 아카라카에서 발행한 신문에는 작년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마초맨의 제작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한 난이 있었죠. 이 마초맨이라는 새로운 응원가가 아카라카의 평가대로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작년에 등장한 마초맨이 표면적으로는 그런대로 인기를 얻고 있고 많은 우리학교생들이 즐겨 부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없을까요? 그저 즐겁게 부를 수만 있으면 좋을까요?

썩썩하고 사내다운 남자라는 뜻의 마초맨은 우리가 부를 때면 언제나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 줍니다. 그는 딱 벌어진 어깨의 소유자. 우리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보호받고 싶다! 그러나 응원단이 그리도 칭찬한 우리 학교의 응원가인 마초맨을 부르면서 여성들은 마초로 상징되는 남성들의 보호를 받는 '본드걸'이 되고 남성들은 '딱 벌어진 어깨'를 가지고 여성들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기죽게 됩니다. (뭘, 기죽지 않고 자신을 마초맨에 동일시할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초맨이 되는 것이 그리도 편하고 즐거운 일인지.)

남성-강하다. 적극적이다. 여성-약하다. 수동적이다. 의

전통적인 이분법이 여기에서도 여지없이 적용되죠. 이러한 이미지가 과연 남성과 여성을 모두 아우르는 연세의 보편적 이미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그물망위에 놓여진 가부장제의 그늘을 봅니다. 이런 대화들을 너무도 흔히 들어볼 수 있지 않나요?

"재 아카라카치고는 다리가 좀 짧은 것 같지 않나?"

"재는 10점 만점에 9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과 애들은 5점도 못 줄 것 같애. 우리과 애들 여자 맞나?"

또한 꽃으로 표현되는 여단원들과 그들의 짧은 치마, 그것을 두고 응원열기를 틈타 합법적이고 공공연히 오고가는 성희롱적 대화들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단지 하나의 노래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즐거야 할 축제의 한마당에서 이렇게 만지거리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놀아보자고 하는 건데 괜히 분위기 망친다거나 연세의 또는 각모임의 공동체문화를 다지기 위해 부르는 노래가 응원가인데 굳이 문제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인식들은 예컨대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무심코 던졌다는 여성에 관한, 여성에 대한 교수들의 폭언을 '이해' 하는 것이나, 친교를 위한 술자리에서 유언, 무언으로 행해지는 성희롱을 피해자 여성의 인내로 '감내'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분위기 탓에 저절러진 일이고 모두가 분위기 유지를 위해 묵인되고 있지 않은가요?

여성의 문제, 가부장제의 문제가 늘 부차적이고 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렇듯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는 문제를 혹은 알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해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실제 '문제화' 시키지 않는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천적으로 가부장제의 동조자일지도 모릅니다. 여성의 문제, 가부장제적 억압은 우리 가까이에서 24시간 365일 작동되는 일상사입니다. '남성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성적인 것'을 규정하고 '남성적인 것'을 '공동체적인 것'으로 여겨 왔던 것에 우리가 진실로 반대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바로 길들여진 의식과 문화에서 시작해야만 합니다.



변신 시멘트 귀신 공연 실지

징크스

세상에 수많은 징크스들이 있다. 그중 대학에서 암암리에 떠도는 이런 징크스도 있다. "여자들에게서 놀면 재미없다." 혹은 "여자들은 놀 줄 모른다."

방방하고 싶었으나 사실... 여자들은 대동제에서 연고전에서 각종 쇼 프로그램에서 동아리 뒷풀이 자리에서 만치 '바라보는 눈동자'이고 '반응하는 인형'이었다. 흥이 나서 미친 듯이 몸을 흔들어야 할 줄 알고 싶었지만 나의 육체에 시선이 집중되고 나의 몸짓들이 평가된다는 생각에 그만 몸을 가지런히 하게 된다. 하이힐 위에 올라선 나의 행동 반경은 이미 정해져 있다. 게다가 오늘 축제를 위해 곱게 바른 얼굴의 화운데이션이 흘러내린다면 큰일이다. 이러니 나무 그늘 아래에서 곱게 서서 가끔 미소를 풍길 수 밖에 어느 날인가는 맘을 먹고 친구들의 아카라가 한 판에 끼어 들었다가 무지막지하게 나의 머리를 땅에 쳐박으며 좋아하는 남자 동기 녀석과 절소부인 벨리제를 부르며 가상의 가슴을 어깨 너머로 넘기며 즐거워하는 과사람들을 보고는 알지 못할 어색함에 다시 구경꾼의 위치로 물러서게 된다. 이리하여 나의 놀고 싶은 마음은 갈 곳을 알지 못하고는 그만 사장되어 버렸다.

힙합 쇼다운

어느 힙합 동선 동호회에서의 일이다.

그들 춤꾼들은 초면이라도 서로 어울려 놀 줄 안다. 어느 비가 촉촉히 오는 날 그들이 벌인 축제라는 것은 바닥에 서너평 남짓한 고무판을 깔아놓고 사회자도 없이 크게 음악을 틀어놓는 것이었다. 굳이 사람들이 몰려들고 춤을 준비해온 친구들이 한명씩 나와서 그들의 장기를 보여주고는 쓰윽하니 군중 속으로 들어가곤 했다. 순서도 없이 저쪽의 눈짓이나 환호성, 박수 만으로 춤판이 두어시간 계속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자니 그들이 매우 부러웠다. 그 판에 모여든 누구나 발이라도 까딱대며

춤을 추고 있었고, 시간이 갈수록 춤꾼들과 구경꾼 사이의 경계가 점차 희미해져 갔다. 노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것이 우열을 가리는 '춤겨루기(쇼다운)'형식인 것은 마음에 걸렸으나 흥이난 사람이 순서대로 나아가서 흥이 다할때까지 춤을 추어대는 모습은 충분히 부러워할만하다. 탐이 나는 문화였다. 여자들도 그렇게 놀 수는 없을까?

공연결심 그후

노는 것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여자들은 놀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만 놀아본 경험만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에 다다른 나와 나의 친구들은 기꺼이 놀이 문화에 처음 물을 끓이는 놀이꾼들이 되기로 했다. 우리는 말로만 듣던 '생소한 여성들'로만 구성된 밴드를 꾸리기로 결심하고 주변에서 함께할 사람들을 찾아 다녔다.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한번쯤 드러나나 기타리스트를 꿈꾸어본 여자친구들이 많았으며 그들은 밴드를 결성함과 동시에 악기학원에 등록을 했다. 악 배운지 한 달만에 공연을 한다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를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한탄했다. 우리는 그걸 몰랐다. 공연에 대해 악기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용감함이었다.

라이브 클럽-단지 밴드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싼값에 연습을 할 곳을 찾아해맸고, 우연히 신촌 구석에 동굴같은 라이브 클럽 아저씨의 눈에 드는 행운을 얻었다. 우리의 의기충천한 모습과 여성으로만 구성된 밴드라는 점에서 일단 흥미가 일었던 모양이다. 클럽 사용 조건은 한달 후부터 무상으로 그 곳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었다. 음... 다들 건 없지.

서울 각지에 사는 우리는 새벽 6시에 모든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그 곳에 모였고, 곡 하나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나면 3시간이 훌쩍 지나버리곤 했다. 가끔은 그곳에서 클럽 아저씨가 주무시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너희 밴드는 박자가 안맞아, 아무리 시끄러운 음악이라도 박자가 맞으면 편안해 질 수 있는데, 도대체가 잘 수가 없잖아."라는 이상한 구박을 하셨다. 나중에 알고 보니 대부분의 여자애들이 그러하듯이 우리 밴드도 몇 번 하는 척하다가 곧 포기하고 그만 둘 줄 알았다고 한다. BUT 그러나 멤버가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안되면 되게하라'식의 운동을 통해 단련된 인물들이어서 아무도 중간에 그만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터였다.

사나이밴드

기타를 메고 다니면 길거리에서 쉽게 아는 척하는 뮤지션들을 만날 수 있다. "오, 음악하세요? 나도 베이스치는데...", "아~예, 그러세요?"

소위 음악을 한다는 사나이들은 가끔 우리에게 충고를 하기도 하는데, 그들이 전하는 충고라는 것이 대부분 이러한 내용이다. "무조건 다른 밴드를 만나면 기죽지 말고, 절단적해서, 기를 눌러라. 한번 무시당하면 그 판에서 인정받기는 애시당초 그런 거니까."

"누군가가 '드림은 그렇게 차는 게 아니다.'라고 간섭하면 집에가서 죽어 라고 연습을 할지라도 그 앞에서는 이렇게 말해라. 너나잘해."

참...어쩌면 남자들은 정치권 하건 음악을 하건 충을 추천 언제나 쟁탈전이 되곤 하는 걸까? 하여간 우리 밴드는 보기 드물게 겸손한(?) 밴드였고, 다른 밴드를 만나면 곧잘 제자를 삼아달라고 조르는 편이다. 우리는 사나이들이 판을 치는 언더 밴드 세계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밤샘

공연은 앞으로 3일 남았다. 저번에 클럽 청소를 게을리했다고 우리에게 비진 클럽 아저씨의 구박에 못이겨 우리는 다른 연습실을 찾아 떠돌아 다녔다. 서울 시내 어느 대학이라도 약간의 공간과, 드럼과, 앰프만 있다면 어디라도 달려갔다. 연습시간이 부족해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는 집에가는 막차를 놓치고 과방 쇼파에서 신문을 읽고 잠을 청하기도 했다. 능글맞은 수위아저씨와 홀몸거리는 총학생회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며 타대학에서 잠을 청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스스로 초보임을 절감하며 우리는 공연 전날 밤샘을 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마치 벼락치기 시험 공부를 하는 설박한 심정으로 밤을 새고 나니 멤버들은 모두 얼굴이 하얗고 유령같은 물골로 공연 날을 맞게 되었다. 아...멋진 무대의상과 귀신 메이킹은 이미 지나간 버스였다.

얼음땀-단지 밴드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2.

아...믿을 수 없다 공연 시간은 5시. 지금 시각은 3시.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다. 아침 일찍부터 차려놓은 400만원 짜리 앰프가 대책 없이 젖고 있다. 전화번호 131을 누르자 "오후부터는 개이다." 거짓말이. 어김없이 흘러나온다. 믿은 우리가 잘못이지...

한 달간의 고생이 눈앞에 주마등처럼 흘러간다. 우리는 밴드 역사상 가장 비운의 주인공으로 기억될 것이다. 아침나절 불인 포스터가 젖고 있다.

비닐을 사다가 모든 기기들을 포장하고 나니 저 멀리 파란 하늘이 보인다. 더 멀리에는 먹구름이 보인다. 앗 기회다. 저 검은 눈이 이요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는 공연을 해야만한다. 따뜻한 캔커피를 나누어 마시고 치후한 튜닝을 마치고 드디어 색동 조명과 함께 공연을 시작하게 된다. 비에 젖은 마이크를 쥐고 감전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였다가 바로 옆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모인 사람들에게 너스레를 걸어본다. 아파 무대 배경천을 걸어 놓은 것이 비바람에 묵직해져서 떨어지지는 않을까, 여자들만 공연한다고 자기가 꼭 나서야겠다고 꼭 찬담처럼 말씀하시던 할아버지 수위 아저씨가 중간에 뛰어돌면 어쩌나. 감기에 몸살 걸려버린 우리 보컬은 목에서 바람 소리밖에 안나던데...

백가지 걱정들은 조명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몸에는 한가닥 오기와 물렁한 감기 기운만 남아서 너울거렸다. 하열튼 우리의 준비된 쇼는 진행되었고, 이로써 바닥으로부터 시작한 무대보 여성 밴드는 하나의 완전한 일을 성사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우리가 반쪽짜리가 아님을, 태생적으로 놓지 못하는 동물이 아님을 증명하였다.

놀이로 대화하는 놀이꾼

우리는 가사를 선별하고 뜯어 고치고, 테마가 있는 소리화면들끼리 메시지를 담아냈다. 우리는 놀이를 통해 대화하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선나는 기운을 불어넣어 주고 싶었다. 여자들 안에 표출하고 싶은 여성들을 모셔내고 싶었고, 참시라도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여성 놀이 공간을 경험하고 싶었다.

휴우~ 한시름 놓았다. 시작은 반이라 하였으니 이제 또 다른 여성 놀이꾼들이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마지막에는 모두 나름의 놀이 방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 우리는 그동안 서로 만나서 공동의 축제를 누려볼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우리는 알고보니 삶의 내용들을 놀이로 풀어가며 아주 자~알 노는 여자들이었다. 이제 각자가 확인할 때이다. 나는 어떻게 노는 여성일까?

제11대 총여학생회 선거준비

“지루한 세상에 대한 낯선 시선,
열린 질서를 향한 여/성/행/동”과
함께하는 사람들

정후보: 장임다혜 (법학 3) 장담

부후보: 최박명현 (간호 3) 톰툰

이궐말: 류김진숙 (정의 4) 강

최고경아 (신방 4) 새

청김말: 김김후영 (인문 2) 아미

이윤정 (법학 1) 다나

서이경희 (법학 1) 감

김유영 (인문 2)

성홍윤희 (법학 2) 초비

서번중성 (인문 1) 독

역음말: 김임은정 (신방 2) 이안

전최주영 (신방 2) 광이

아울말: 한천지영 (인문 3) 이다

생각말: 피강소현 (정의 3) 피소

알림말: 강김정임 (인문 2) 독지

박성옥수 (행정 2) 수리

장수지 (인문 1) 술래

살림말: 최정현별 (신방 2) 열우

모 반: 정이여진 (의예 2) 아만인

이김찬희 (화공 2) 가비

한유현진 (생활과학 2) 시퍼

구변영환 (사회과학계열 1) 꾸리

김선희 (법과대학 1) 아끼

김현주 (유럽어문 1) 예감

우모반우

모든 가부장적 질서에 반대한다.

모든 익숙한 것에 대해 반대한다.

모든 사람이 반짝거린다.